

- Invited Paper -

**어류양식의 문제점과 타개책**  
**- 수산양식에 관한 현주소 -**

허 율

한국 양만수산업협동조합, 한국

우리나라에 양식산업이 정착되고 발달되어 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초창기 양식업이 기술적 어려움을 겪었다면 현재의 상황은 또 다른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고 있다. 어업자원의 감소, 어장 환경의 황폐화, 수산양식업 취업자수의 감소 및 이에 따른 수입수산물의 증가에 기인하는 국제화와 시장경쟁의 진행에 의한 유통구조의 변화등이 현재 수산양식산업이 처한 난제들이다. 아울러 WTO에 의한 농수산업의 보조금 지급 금지등 더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해수양식은 바다의 어족고갈로 인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정부정책 전환과 막대한 지원에 힘입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기르는 어업, 즉 양식산업에 대한 관심은 대단하다. 이는 상대적 저물가, 저임금의 국가들과 양식산업의 경쟁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부 정책을 믿고 해수양식에 매달려 왔던 양식 어민들의 오늘의 현실은 1990년대 초부터 우리의 양식시장이 중국에 개방 되면서부터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암담한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현재 수산물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연간 6억불에 이르고 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각 나라 마다 1차 산업인 농수산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미 금년 초부터 해수양식의 본산인 충무지방에서는 수많은 양식기업이 부도를 내고 도산하고 있다. 값싼 노동력 등으로 무장한 중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하라고 수산양식업을 개방한다면 경쟁이 될 수 있다고 정부당국은 보는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우리나라의 양식수준은 양식 선진국인 일본과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으며 적정이윤만 보장되면 충분히 발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제 담수양식에 대하여 담수어종의 주류인 뱀장어 양식에 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한다. 본인은 반평생을 (30년) 뱀장어 양식을 하며 살아왔으며 뱀장어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담수양식의 주어종으로 국가발전과 국민보건 증진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1980년대 까지만 해도 일본, 대만, 한국이 그 치어를 잡아 키워 그 중 80 ~ 90%를 일본이 연간 소비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며 중국이 뱀장어양식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일본 시장을 놓고 벌인 대만

과 중국의 치열한 경쟁에 휩싸여 종묘기근으로 어려운 고비를 맞아 한때는 우리나라 300여개 업체중 70%이상이 종묘 구입을 못해 도산위기에 빠지기도 했으며 중국의 저가공세에 시달린 일본, 대만의 양식업계도 50% 이상이 도산 하였다. 이에 일본은 자국 생산자 보호를 위하여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자구책으로 원산지표시의 의무화는 물론이고 금년 4월 중국산 뱀장어를 시장에서 샘플 채취하여 정밀 검사를 하였던 바, 7건 중 50%정도에서 중금속인 수은, 크롬은 물론 항생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 되었고 결국 국민여론에 밀려 모든 품목을 정밀검사는 물론 DNA 검사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중국산 뱀장어는 일본에서는 발을 붙일 기회가 없어진 것이다. 그런 중국산 뱀장어가 한국에서는 별 다른 문제 없이 수입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 되어야 하는지 관계부처인 해양수산부나 국립 수산물검사소는 해명해야 할 것이다. 양만조합이 다른 기관 두 곳을 통해 검사한 결과는 두 번 다 옥소린산이 검출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뱀장어의 연간 생산량은 12,000톤 정도이고 소비량은 15,000톤 정도로 추정된다. 그런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1999년, 2000년에 3,000톤 정도였다가 2001년 갑자기 5,400톤으로 늘어 가격폭락은 물론 업계가 도산 위기를 맞았다. 2002년 금년에는 중국이 일본에는 팔지 못하는 중금속에 오염되고 항생제 투성이인 값싼 중국산 뱀장어가 수입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하 수 십미터 아래에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양식하고 있는 데 반해, 중국은 댐이나 하천수에 의존하고 는, 발을 파서 노지에 뱀장어를 키우기 때문에 토질이나 물이 중금속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오염된 물을 이용하여 양식을 한다는 것은 항생제를 다량 투여하지 않고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는 중국도 식품위생을 위해 우리와 같은 투자를 한다면 그들의 생산단가도 상승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입 개방에 앞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양식 생산 기술에서는 남 못지 않은 향상이 있다고 자부할 수 있지만 양식산업 종사자 스스로 이제는 보다 체계화된 경영 방법과 해외 현지에서의 양식 산업 개척 등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키우는 등 국내 양식산업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수산양식업계의 주장에 좀더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 문턱이 없는 개방의 시대에 수입을 막아달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국민건강과 양식어민을 위해 담수어든 해수어든 중국으로부터 한국과 같이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는 수산식품이 수입 될 수 있도록 국가행정력을 발휘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한 노력들이 정착될 때, 납이나 중금속 또는 항생제등에 의한 국민건강 위협은 감소할 것이며 우리나라 수산양식업이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